

文대통령, 백신 주사기 생산 현장 방문

의료기기 국산화 성공한 군산 위치 품립과마텍 방문... K-방역 자신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 업체를 찾았다. 최근 전 세계로부터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주사기로 K-방역 위상을 다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LDS 주사기는 주사기에 남은 약물 잔량 손실을 대폭 줄이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주사기다. 일반주사기로 코로나19 백신 한 병당 5회분까지만 주사할 수 있지만, LDS 주사기로는 6회분 이상 주사가 가능해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LDS 백신주사기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 달리, 국내 자체 기술로 생산해 충분한 물량 공급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 일정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수출을 통해 위기 극복 노력을 하는 혁신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주)품립과마텍을 찾은 문 대통령은 LDS 백신주사기 생산공정을 시찰했다.

의료기기 수입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던 품립과마텍은 최근 사업 방향을 바꿔 의료 기기 국산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LDS 백신 주사기 개발에도 도전해 성공했다. 최근 세계 20여 개국으로부터 제품 구매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대기업의 협력이 더해졌다는 측면에서 이번 일정에 의미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품립과마텍은 백신주사기 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시제품 생산과 양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삼성전자와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시제품 제작에서 생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제조 과정이 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올해 2월부터 월 1000만개 생산체계를 갖추게 됐고, 다음달부터는 최대 월

2,000만개를 양산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체계가 완성된다.

청와대는 "품립과마텍의 혁신역량에 더해 대기업의 상생 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민간 협력의 또 다른 성공 모델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례"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김강립 식약처장으로부터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후 생산기업들로부터 LDS 백신주사기 생산 역량과 국내외 공급 계획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심각한 방역물품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와 달리 마스크, 진단키트에서부터 LDS 백신주사기에 이르기까지 K-방역 전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

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소기업 덕분임을 강조했다.

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방역 물품의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늘려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현장 일정은 품립과마텍뿐 아니라 LDS 백신주사기 생산에 나서고 있는 (주)신아양행, (주)원메디텍 생산업체 경영진과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효율화에 도움을 준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아양행과 원메디텍은 이달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LDS 주사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제작 코로나19 백신 특수 주사기에 대한 수출 요청이 전 세계로부터 쇄도하면서 '제2의 진단키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지난 25년간 매년 평균 2,000만개의 LDS 백신주사기를 수출해온 신아양행은 최근 해외에서 대량의 구매요청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메디텍도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대규모 공급요청을 받고 있다. /뉴스식

어린이창의체험관 23일 재개관

온라인 사전 예약·인원 30% 축소 운영 등 방역관리 철저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관했던 '어린이창의체험관'을 오는 23일 재개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관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지난해 12월 1일 휴관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전환 결정되면서 84일 만이다. 체험관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이용객만이 입장할 수 있으며, 3일 시설을 감안해 인원을 30%로 축소 운영한다.

이용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발열검진,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주요 접촉면 수시 소독,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일부 체험시설은 운영제한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방문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 및 창의공감 등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소통의 정도 제한한다. 체험관 시설에 접목된 과학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체험관으로 떠

나는 과학여행',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 블록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작품을 뽑내는 '온라인 행복 가득 가족놀이터', 체험관 참여 후 기작품 및 공감투표 등 체험관 이용자들의 소통장소 '창의공감' 제공 등을 진행하고,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임시 휴관 기간에도 신규 홍보시설 설치 및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체험관은 임시휴관 기간을 이용해 야외, 글자조형물과 대형 입간판 등 홍보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4개분야(VR, 방화놀이터, 공연장, 체험관)로 떠나는 과학여행) 32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1만7,156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정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관을 기다려준 우리 아이들에게 즐기며 마을 것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체험관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농촌유학 활성화 위한 기관 간담회

전북도가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및 도내 4개 유학센터장과 간담회를 지난 16일 가졌다.

간담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도내 4개 유학센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참석해 농촌유학활성화 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과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전북도는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내 4개 농촌유학센터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을 보유한 학교에 지원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6,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총 3억 1,800만원을 투자해 농촌유학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유학센터는 농촌유학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사업비 확대와 유학생이 부담하는 유학 비용(월 60~70만원)을 전북도와 교육청 등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도 농산어촌유학 발전을 위해 기관 실무자급 TF팀을 구성하고, 농촌유학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공모사업 형태로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발굴하고,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도와 교육청은 기관 간 상호 검토해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논의해 보기로 합의했다. /유호성 기자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지원 협력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프)와 전북도는 18일 '전북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헌진 전북도지사와 문성유 캠프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 산사태 예방·대응 강화

전북도가 지난해 장마철 발생한 산사태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와 함께, 현장예방단 운영 등으로 산사태 예방과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서 8월까지 이어진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도내 533개소(산사태 246ha, 임도 25km)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산림피해 지

역의 항구적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적정공법의 사전설계를 완료했다. 아울러, 해빙과 동시에 2~3월 중 복구공사를 착공해 위기 이전인 6월 말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남원시와 장수군 등 6개 시·군, 5개 면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산림재해

복구에 따른 추가지원비 260억원을 받아 총 841억원을 투입해 항구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복구는 단순 기능복구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개선복구로 추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일일 강수량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산사태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현장에 방단'도 운영한다. /유호성 기자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전북도, 분야별 전문가 29명 구성... 시설보수공사 무료 자문

전북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해 제정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후속 조치 일환으로 2월부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를 대신해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을 민간전문가가 현장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시기,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무료 자문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자문단은 전문가 추천을 받아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분야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신청대상은 하자기간이 지난(사용검사 10년이상 경과단지) 사업계획승인이 받은 공동주택이다.

자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

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공동주택 소재지인 시·군으로 하면 된다.

올해는 100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감사·조사를 받는 경우,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수 없다.

전북도는 앞으로 기술자문단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주민의 분쟁 예방과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기술자문단 운영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모교의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카데미, MBC TV, JT, TVN 출연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교양' '스피치 노하우' 등

▶ 전담교수 주요경력 <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경주,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교육과정(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시 공고 제2021-372호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4차변경)

전주시 공고 제2020-2871호 및 제2020-3034호, 제2021-26호, 제2021-148호, 제2021-197호로 공고한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3차)」에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명: 전주대대 이전사업
나. 위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번지 일원
다. 면적: 313,772.7㎡
라. 사업내용: 통합생활관, 병사·간부식당, 유휴면회소, 간부숙소 등
마. 계획수립기관: 전주시(승인기관: 국방부)
-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

구분	공람 기간 및 장소	
	당초 변경	변경
공람 장소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익산시 춘호면 행정복지센터	익산시 춘호면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변경)

구분	현장 주민설명회(초안동 주민센터)		온라인 주민설명회(전주시 홈페이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전주시	당초	추후 공고	'20.12.31. ~ 2021.02.19	추후 공고
	변경	추후 공고	'20.12.31. ~ 2021.03.05	추후 공고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공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2021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내용: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다.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신도시사업과(063-281-2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전주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